

사설

주변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충청 취입 1주년, 봄은 잊고 있고 또 찾아왔다. 항상 오는 봄이지만 금년의 봄은 더욱 화려해 보인다. 이국적인 정취를 풍기는 새 연구동, 인공위성 수신 시스템 관공, 제 2선연구동 작업, 동국대학교 건물과 의학과 연구 종합센터의 연대 작품, 지난 10년간 못다한 한을 단 1년에 푸는 느낌이다. 여기에 잠시 실내 체육관에서의 40주년 기념 행사의 대성공, 신입생 학부도 초청 강담회의 대성공, 동문들로부터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관심과 지원, 애경산업·대원기계·삼성그룹 등과의 산학협동, 이번 봄은 이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견고해지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발전은 외형적인 것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학교가 발전하는 것은 우선 구성원의 발전적 의지와 사고가 선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1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을 전가하고 무사안일하려는 주변적 사고가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봄 안중환의 취임과 함께 매스컴의 관심을 받으며 시작된 '열린 총장실'은 교내 언론을 위해 곤란해 바가 크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의 동태적 관심을 우려하는 교수·직원들의 소리는 여전하다. 이것은 학교 발전을 위한 총장의 역할이 커지고 대학의 업무가 비핵심적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교내외에서 일어나는 몇가지 사태는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최근 교내에서는 지역화 도입 문제로 백지화되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학과장들과 학생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의를 거치는 동안 일부 학과장들은 토의 결과와 다르게 전달, 수습하는 데 대하여 의혹을 보이고 있다. 또 어떤 교수는 학교의 명로 학교제도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췌하여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 그 보고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어 결국 자신도 '백지부' 중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학과장 회의에서 직원 과장이 부사 책임자인 학과장에게 반박을 주고 책임을 전가해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장이 사제기 일어난다 결국은 말단부서 직원이 책임을 지고 타부서로 전출되는 일로 불명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은 자기의 일을 성취하고 그 안에 영주권을 안주하려는 주변적 사고가 광범한 보신주의적 풍토가 불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충성이 아무리 많은 기쁨을 초월해도 학교의 실질적 발전은 신기루가 될 수도 있다. 진정한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식을 강조해야 한다. 이제는 학생들조차 발전을 향한 총장과 학교 당국의 의지를 이해하고 공부에 전념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바로 학생들이 먼저 중심적 사고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의 구성원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과 권리에 연연한 주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하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중심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보직을 맡은 교수는 임기내의 사수만을 기원할 것이 아니라, 임기 후의 학교 발전을 더 걱정하고 업무에 관해서도 임기 후의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감 갖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들의 머리 속에서만 맴도는 좋은 아이디어들과 열정을 끌어내어 학교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도 자신의 생각을 머리 속에만 간직하고 사담으로만 흘려버리지 말고,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개진해야 할 것이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보다 학교 당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려는 긍정적 자세가 요구된다. 또 직원들은 단순히 책상 앞에 명패를 붙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더욱 낮은 자리에서 더 큰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열린총장실'이 갖는 '열린'의 뜻이 실현되고 학교의 발전에 부응적인 주변적 사고가 불식되고 2천년대의 도약을 위한 참다운 중심적 사고가 확립될 것이다.

흡산의 소리

외대인들의 삶이라는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전실된 삶, 함께 하는 삶을 소망하는 외대인들의 삶이라는 목소리를 여기에 실고 싶습니다. 원고지 2~7매에 그 목소리를 담아 매주 금요일 오후5시까지 본보 학생기자실로 가지고 오십시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외대학보에서는 컴퓨터통신(하이텔·천리안·나우콤)을 통해 원고를 받습니다. ID는 모두 'OEDAE'입니다. 원고에 이름과 단과·학년도 같이 밝혀 주십시오.

본교 박학의 교수 구속을 보며

학문에 국보법의 칼날 없어져야

1995년 5월 1일, 10년전인 1985년 5월은 '민중 교육'이라는 비정기 간행물이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아 많은 교사들이 교장을 떠나야만 했던 속사이다. 그 날 오후 당시 내과 교수였던 동대문의 지도 선생님께서 작은 쪽지를 주시면서 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가고 내면 여기에 전한 변호사 전화를 해 달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향해 걸어 갔다.

전화를 해보니 다른 어떤 교수도 출근한 참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 보았더니 책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학교가 파한 후 부러워했던 관공 책이 구해 들어 보았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리 되신 연유를 어렵게나마 찾아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때의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자주 시를 낭송해 주셨다. 입시생 생각

하는 우리는 성문종합영어를 보고 있었다. 또한 선생님은 자주 우리에게 풍경을 예기해 주시기도 하셨다. 국사를 따로 배우는 우리로서는 그 시가 어렵기만 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연행된 후 학생들은 그러한 이야기에서 뒤늦게 선생님의 성품을 찾아가 바랐다.

어느 날 같은 경우를 당한 다른 학교에서 학생 몇 명의 명의로 대변자로 나왔다는 소식이 학교를 휩쓸었다. 그 날부터 우리들 사이에서 선생님의 성품을 조급해 몰래지키기 시작했다. 선생님께서는 이후 여러 교사들을 위한 투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이제 10년이 흐른 지금 나는 대학생이 되어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 소식을 듣자마자 바빠 신문 기사를 읽어 봤다. 그리고 교수님까지 그리 되신 이유를 간단해서라도 이해하려 했지만 조금은 문리를 깨진 지금에도 나는 도대체 아무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영영 이해할 것 같지도

않다.

교수님께서는 자주 수업시간에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강의 시간에 자주 통일 얘기를 하셨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교수님께서 가진 위대성이 그러한 이야기에서 교수님의 뜻을 깨우치려 하고, 맞선 전에 들은 강의를 떠올리고 고 애한다.

비록 우리는 수업에 바쁘더라도 담임부터 대표를 쓰며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교수님에 대해 애가 열기를 더해 갔다. 호르몬으로 가까이 베풀었다.

작년 올인원에서 있었던 전제사상연구회 사건에 이른 박학의 교수님 구속으로 다시 한번 문인 정부의 허물을 느끼게 된다.

이런 대이상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로 학문을 침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을 해야만 할 수 있다.

이병선 (인문·사학 4)

송인, 휴식 공간 마련 시급

학생회관·도서관 뒷마당 활용해야

봄 햇살에 평화로운 풍경이 엿보이는 송인의 모습은 아름답다. 봄이 와서 노랗게 활짝 피는 꽃들도 아름답지만 학생들이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좋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어떤 자연 환경에 있어 이 경치를 마음껏 누릴 만한 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그 문제이다.

학교만 덩그러니 놔두고 쉼터만 있는 장소는 없는 것이다. 평온한 명수당 앞 잔디에도 나무가 없어 텅빈 듯한 느낌을 준다. 물론 저라도 기와 없다. 봄이나 가을에는 그런대로 명수당에서 놀고 즐긴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워지면 명수당은 햇볕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쉼터만 공간이 돼 버리고 만다.

이 상황은 비단 명수당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이곳 저곳에 학생들이 쉴 곳이 없다. 이른바 학교 앞의 조용한 공간이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 앞의 조용한 공간이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 앞의 조용한 공간이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학생회관이나 도서관의 뒷마당을 개발하는 것이다. 뒷마당을 깎아서 나무와 의자를 조화시키면 공원을 만든 듯이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다. 특히 도서관 앞에는 매점이 없는데 뒷마당에 매점을 깔고 도서관을 찾는 문구점을 설치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생회관과 도서관이 연계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즐겨 쓰는 공간 문화가 형성될 수가 있다. 이 밖에 건물에 있어 마음껏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공동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외곽기 도록 대학당에서 총학생회에서 협력을 할 것이다.

조진성 (자연·전자공학 2)

농활을 활성화하는 방법 강구돼야

농활을 활성화하는 방법 강구돼야

신록의 계절 5월이다. 계절의 여왕답게 5월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5월에도 아름다운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 나가기도 벅차 자신들과 여유 한몫 가보지 못한 농촌 상인·빈민들이 그러하다. 또한 UNR로 인해 농사 걱정을 하면서도 이번 봄에도 어김없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그러하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운은 이런 분들의 삶의 지열함이 아니라기 보다, 이런 삶의 지열함을 나누기 위해 오는 17일(수)부터 21일(월)까지 농활을 시작한다. 이 글에서는 농활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농활을 준비하며 느끼는 생각들을 이야기 해볼까 한다.

농활이 학생의 대외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활을 통해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질문에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한계에 걸친 농활 경험을 이야기 할까 한다. 그 속에 어떠한 농활을 하면 이 기간 동안의 수업은 결사 처리될 수 밖에 없다. 대학의 사회봉사 수업을 위해선 농활을 사회 봉사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양대에서 이번 농활에 5백여명이 참가하는 것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농활을 하면 이 기간 동안의 수업은 결사 처리될 수 밖에 없다. 대학의 사회봉사 수업을 위해선 농활을 사회 봉사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양대에서 이번 농활에 5백여명이 참가하는 것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경수 (정학·신학 4)

한총련 출범식을 다녀 와서

집단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동의 장

제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이 지난 4일(목)부터 6일(토)까지 대구 경복대에

서 열렸다. 예년보다 일찍 열린 한총련 출범식을 보며 느낀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쓴다.

나는 올해 두번째 출범식을 가는 순간 그 후배가 자랑스러워하고 동시에 또한가진 것은 개인만을 중시하던 그 후배가 집단의 자랑스러움을 배웠다는 것이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예전엔 한총련이 폭력 집단이 그 소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와서 보니 다릅니다. 그리고 집단의 힘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집단의 힘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후배가 자랑스러워하고 동시에 또한가진 것은 개인만을 중시하던 그 후배가 집단의 자랑스러움을 배웠다는 것이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 나는 현재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개인주의는 교육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보고 느끼고 배우면 집단의 힘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 온 교육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세기들에게 집단의 아름다움을 꼭 느끼고 말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에서 올바른 지성이 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근찬 (사학·무역 2)

우리의 소중한 피 한방울이 대구 시민을 살립니다

대구부터 고교야구 중계가 더 재미있었던.

-KBS 사장-

대한민국은 서바이벌 게임장이 필요없는 나라다. 현실이 바로 서바이벌 게임장이니까.

-93. L. 에이리-

하늘에서, 바다에서, 철로에서, 다리 위에서, 어떤 땅에서. 다음은 어디?

-북부인 일동-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이다. 왜냐하면 태어난 없으니까.

-공보처 공익 광고-



주제: 사고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며(대구 가스 폭발 참사를 보고)

글까지 살아 남아야 한다. -서바이벌 동호회-

정말 '사고'는 '세화' 수준이다. -세화추진위원회-

배침을, 기차 탈선, 다리 붕괴, 가스 폭발, 다음 사고는 무엇일까요?

-원철 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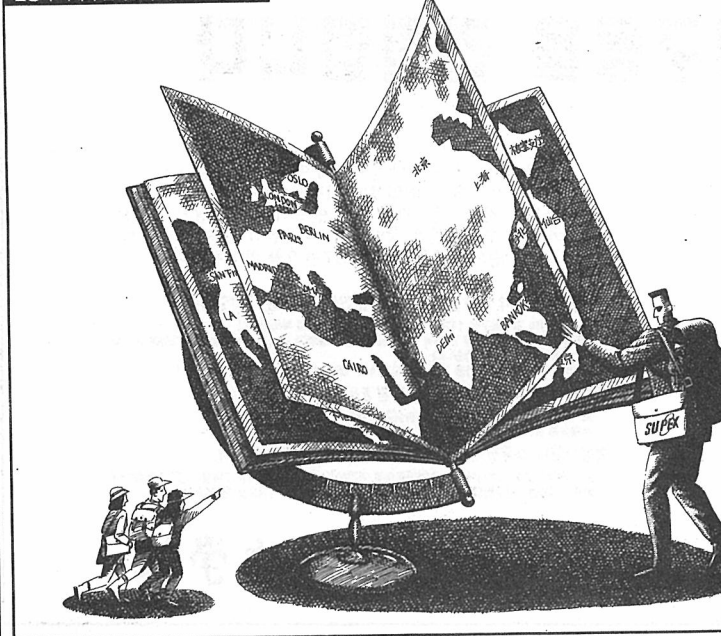
나는 살고 싶다. -원철 협회-

이젠 더이상 놀라지 않는다. -무림각 신세대-

그 따위 '사고(愚考)' 방식의 큰 별장 '사고(事故)'만 난다. -N.K.C-

대구 시민계 깊은 예도의 뜻을 포함한다. -93. 비틀-

선경의 세계화 전략은 수백스 추구입니다



지금은 세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장차 세계를 무대로 뛰실 땐 한국인이 되십시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가 이렇게까지 활짝 열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앞서 생각하고 앞서 준비한 사람들은 지금 세계를 활동무대로 삼아 맹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의 준비가 10년 후, 20년 후 내 모습을 좌우합니다. 세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내 노력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추구하면서 경쟁우위에 서십시오.

'대학시절 중에 외국어 2가지 이상은 마스터 하겠다'든지, '배낭여행을 통해 세계 10개국 정도는 다녀오겠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이러한 수백스 추구가 모여 이 사회, 이 나라의 수백스 추구가 이어집니다.

SUPLEX IS...

세계경제가 무한정 팽창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점에서 확실한 경쟁우위에 서기 위한 선경 특유의 경쟁전략으로, 지금의 세계경제가 앞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 즉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SUPER EXCELLENT LEVEL)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SUNKYOUNG 鮮京 그룹

□ 불패의 애국대오 제3기 한총련 출범식

갈라진 50년 희망의 50년

백만 청춘아, 통일조국 원년을 노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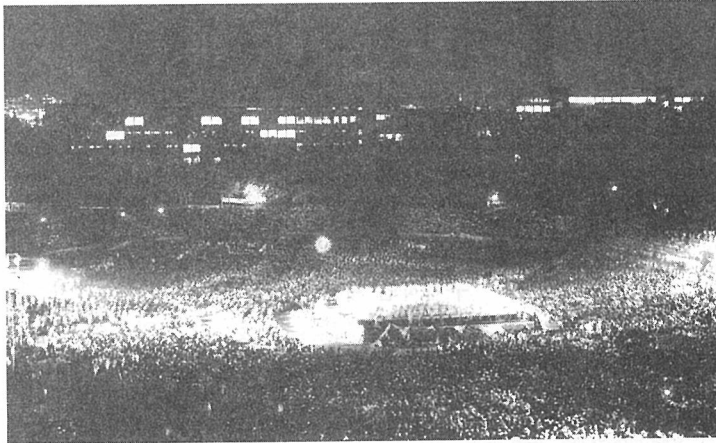


“새내기도 한총련의 주인!!!” “기간 새내기 조직화의 성과를 출범식 행사의 주인공으로 새우고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반 가보지’라는 식의 단편적인 출범식 조직화 경로를 극복하고자 제기된 획기적인 사업으로 올해는 ‘1995 새내기 문예단’이 결성되었다.

하지만 이번 새내기 문예단은 이 외에도 또다른 의미가 부여됐다. 1995년이라는 민족사적 해의 숫자를 맞음으로써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각 과마다 새내기들을 모아 전국적인 총화를 하는 길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새내기 문예단은 전야제와 출범식에서 군중연회 창출의 색이 났고 출범식장의 분위기를 생기와 패기로 장악하기도 했다.



“백만의 통일축제” 95년의 시대적 과제인 통일구국 투쟁, 5·18과 과거청산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힘차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전국 곳곳의 7만여 명의 학생들이 대구 경북대에 집결해 한총련 출범식을 사수했다.

이들동안 새우김 한술 제대로 지지 못했지만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에 도 모든 학생들은 자릴 뜨지 않고 ‘통일축제의 장’이었던 출범식을 끝까지 사수해 낸 것이다.

이번 출범식은 ‘조국 통일 원년을 노래하라’라는 구호로 시작돼 의정 운동식까지 갖춰진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통일과 5·18청산, 지지제 승리, 민주노총 건설 등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출범식은 올해 정세의 통일요구와 투쟁을 시작해서 상생국선을 그리자는 취지로 애년과 달리 앞당겨 개최됐다.

“이제 나도 한총련 문화행사에 참가해야지!”

“출범식의 꽃”인 문예분과는 예전의 사업과 기획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체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마당극 등 학생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문예기획으로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물로 무대행사 뿐만 아니라 각종 전시전 및 마당행사가 여러가지 주제를 열었다.

그 하나로 각종 거리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역사의 거리, 통일의 거리, 대구경북의 거리 등 6개의 거리전 시회가 경북대 곳곳에 마련됐다.

“역사의 거리”는 분단 50년이자 해방 50주년인 현대사를 재조명하고 자주민주통일의 열망을 보여주려 했다. ‘한총련과 나의 거리’는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90년도 안의 청년들의 조국 사랑과 투쟁의 역사를 총화하고 대 학생으로 청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게 했고 한총련과 학생회간, 나와의 일치감 속에 미래를 전망하게 하고자 했다.

사진은 경북대를 비롯한 대경총련 대학생들이 마련한 대구경북 거리 전시회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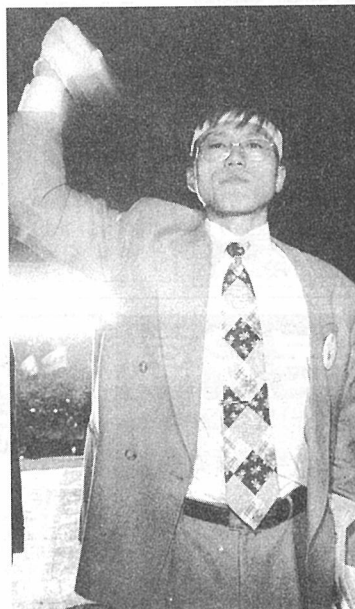


“한총련도 똑똑해야지!”

이번 출범식에는 많은 학술행사가 열렸다. 둘째날인 5일(화) 오전 10시부터 3시간 여 동안 ‘백만청춘의 열린마당’이 열렸는데, 각 부문에서 다양한 토론·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강연회는 역사·통일·철학·운동전통·교육·문화 등 각 파트별로 27개의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고 각 강의실마다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 앉을 땅바닥도 없을 정도였다.

사진은 박세길(다시사는 한국현대사 저자)씨의 “한국전쟁을 재조명한다”는 주제로 열린 역사 강연회의 장면이다. 박세길씨는 “분단의 극복은 한국전쟁에 대한 극복에서 시작된다”며 한국전쟁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역사의 모순을 살피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상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인 준비부족으로 문제도 있었지만 이러한 학술행사를 한총련의 ‘학습의 강중’을 깨닫게 해준다고 한다.



“의장님 사랑해요”

“불패의 애국대오 제 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정태호, 힘차게...”

지난 4월 대의원대회에서 강선을 통해 한총련 의장으로 당선된 정태호 의장은 한총련을 최선봉에서 이끌어가고 각 사람인 만큼 인사말도 우렁차다. 또한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환호성과 한총련 진군가는 기스 폭발보다 더욱 우렁차다.

한총련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95년이라는 의미에 맞게 남북해협의 실질적인 만남을 추진할 것이다”며 각오를 밝히고 “그러나 되도록 정부와 미찰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8·15공동행사를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가 앞장서서 한총련을 강화하자”

둘째날인 5일 오후에는 부문계열의 행사와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한총련 부문계열로는 각 과별로 묶인 공학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법학 계열, 예술계열 등 30개 부문계열과 그 외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등 언론부문과 동아리 등 12개 부문계열 등 총 42개 부문계열이 있다.

각 부문계열들은 이날 결의를 다지고 각종 행사를 통해 각 단위의 조직을 강화하고 한총련 강화와 올 사업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각 부문계열들은 서로 한총련의 최선봉인 “우리가 앞장서서 한총련을 강화하고 조국통일 이룩하자”고 외쳤다.

사진은 각 부문에서 준비한 춤과 창작무용을 선보이는 춤마당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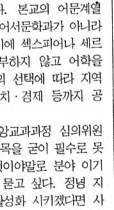
“우리가 서있는 데서 가스폭발하면?”

한총련 출범식을 마치고 결의를 다진 학생들은 대구 시민들을 만나러 대구 미문화원, 대구 문화방송국(MBC), 신천대로 등 대구 시내 곳곳을 행진했다.

학생들은 ‘시민·학생 연미당’을 통해 한총련 내에서 결의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자 가두행진을 벌였다. 시민들 보다 경찰 활기와 굴욕감이 주동해 있는 전투경찰들이 더욱 반감을 맞이하는 것 같았다.

학생들은 ‘대구가스 폭발, 축소보도 켈말이나, 부실정권, 무능정권, 김영삼정권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구 시민과 하나되려 노력했다. 작년 광주보다는 약간 민심이 각박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중간중간마다 음료수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대구 시민들의 정성에 학생들은 감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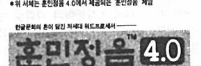
우리 이웃이 살고 있었네

어문학의
르네상스와 지역학

변화없이 속빈 강정이 되어 버린 개정판의 허실

고 있는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 이상의 지역화 강도가 필요하다면 부전공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또 나아가 대학원에서 지역화 연구를 활성화해 앞으로 설립될 외국과 중앙연구센터를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바이다.

원도우용 한글 글꼴의 정상에
훈민정음 4.0이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한글 글꼴
훈민정음은 뛰어난 안정성과 편리성을 자랑합니다

- ❖ **원도주 환경에 알맞은 최적의 한글 글꼴입니다.**
 - 일관성 있는 원도주 운영방식 제공
 - 60종의 혼인 사례 모듬 등 모든 자원을 다 응용 프로그램과 공유
 - ❖ **원도주에서 맞는 독특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 한글 및 서체 변환 기능 : 원도주 혼용 문서의 서체 기능
 - 일괄적 발췌 및 고지 입력 및 기록한 서체 제공
 - 온라인 방화벽 세팅도 가능 : 원도지 형태로도 및 수출 가능
 - 한글/영문 서체 구분 및 1% 단위의 정, 형제 지원
 - ❖ **원도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그래픽 기능을 지원합니다.**
 - 한자 및 발췌 변형 등 : 자유로운 발췌의 모양 및 크기 변경
 - 배운 문자 및 배운 서체 자동 생성 : 다양한 한글 표기 및 입력 및 편집
 - 사림, 미풍 등 3종의 도형 테일러트 제공 및 테두리처리
 - ❖ **사용자의 요구 반영으로 컨리싱이 향상되었습니다.**

세계 1등제품만을 만들겠습니다

SAMSUNG

사

□ 제 105주년 노동절 대화와 올 임금투쟁 전망

사회개혁 타고 민주노총 건설까지

사회개혁 투쟁으로 보다 힘있는 투쟁 결의... 6월 말 임투 집중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을 향한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드디어 본격화됐다. 민주노조 전진을 위한 '사회개혁'이라는 예년과 다른 새로운 투쟁 양상으로 민주노총 건설의 발진음을 내딛을 전망이다.

지난 1일(일) 오후 1시 서울대에서는 노동자·학생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 10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과 '96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노동자대회'가 열려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대회는 각 사업장의 상황보고와 뜻지·희망제 등의 축하공연에 이어 본부발령에서는 축사와 올해 투쟁방향선,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고 마치고는 보리밭광장까지 거리산전전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투쟁방향에 대해 전국학생노동조합의 대변인 위원장은 "올해는 상반기 임금·단체협약 경신투쟁(임단투)과 하반기 노동법 개정투쟁(사거투)이라는 단조로운 양상을 탈바, '사회개혁 투쟁'(사거투)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것"이



105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수도권대외직업위원회의 위원들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노동자 대회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출전하여 노동자임을 어기고 임금·단체 협약경신투쟁과 사회개혁투쟁을 함께 진행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리며 구체적인 실천지침으로 △6월 15일 20일 사이에 각종 집회와 총파업 투쟁을 공동으로 하는 등 전국적인 공동 대응을 △지자체의 적극 대응으로 정치활동 금지 조항 무효 △각 사업장에서

사회개혁 투쟁 진행 △해고자 복직투쟁에 적극 지지 등을 제시했다. 또 5월 중 사거투에 대한 선전을 집중하고 6월 3일 전국농민대회 집회를 시작으로 임단투와 사거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목새 6월 지자체를 전후해 임단투와 사거투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준비위원회의는 지난 1일 대표자회의에서 사거투를 중심으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노동자와 국민 전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단결과 정치의식을 강화할 수 있고 동시에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사회개혁 투쟁의 의의를 밝혔다.

사회개혁 투쟁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4대 17개로 분리 운영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의료보험통합 포함·일회화와 보편화를 범위 확대 둘째, 실제 노후생활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연금급지 문제 해결 셋째, 유아교육 의무화 육화와 국민연금 무로급지, 타소 설치 등 교육문제 해결 넷째, 근로소득의 세율인하와 사회복지 예산 증액 등 세제 및 재정개혁 다섯째, 재벌그룹 내부역가치의 공개업 민영화 반대 등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여섯째, 노동법 개정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범민족대회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수감됐던 무죄로 풀려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이창복 상임의장은 축사에 "우리는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총단결을 위해 힘찬 발진음을 내딛고 있다"며 "이를 위해 5·18과 8·15 통일민족공동행사와 사회민주와 투쟁에도 노동자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에서 김영배 씨는 "민주노총 건설은 이 땅 노동자들의 꿈이었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난관이 있다"며 △임금급지 확대 인 분배하고 의료보험 등 사회개혁 투쟁 강화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 노동법 개정 정치활동 금지 등을 통해 6·27지자체에 적극 참여 △남북 해외가 모두 참가하는 8·15민족공동행사를 위해 적극 투쟁 △10월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 노동조합의 산별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수미 기자)

사회단신

전국농민대회 7대 농정과제 결의

'WTO'이행 특별법 조기입법과 통합의료보험 정착을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지난 27일(토) 경기도 노원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결의대회를 마치고 온 농민 2천여명 외에도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주노총 준비위) 소속 노동자와 한국대학교 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격려사에서 민노총 준비위 공동의장인 김영길씨는 "노동자와 농민은 강력히 연대하여 의료보험 통합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며 이 힘을 지방자치 선거까지 끌어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고 "정권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전국농민대회와 의료보험연대회의의 사무국장이 도시빈민과 농민에게는 실제 적용률을 초과하는 보험비를 받으면서 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의료보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국농민대회총연맹(전농)은 결의문에서 "7대 농정과제를 반드시 수립하고 이중 핵심이 되는 의료 통합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정보도 선본위' 발족식

지난 4월 28일(금) 백여 명의 시민들이 낸 대구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방송 3사의 보도는 단 10분이었다. 이러한 편파방송의 배후에는 선거를 의식한 정부의 보도자제 압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구 참사 축소 보도에 대한 규탄대회와 방송개혁 국민회의의 지자체 선거공정정보대책본부 발족식이 지난 4일(목)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다. 대구 시민·학생을 비롯한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방송개혁 국민회의의 "대구 가스폭발 사고를 비롯해 일어난 이천동 가스폭발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정권은 보도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고 "이번 사태를 객관적이고 이원화 정중하고 정무수칙과 오인한 장 관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개입에 의한 편파·왜곡 방송을 지자체 선거에서도 자행될 확률이 크다"며 "지자체 공정보도를 위해 선거공정정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밝혔다.

대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KBS와 MBC 방송사 앞에서 한미방문을 진행했다.

□ 8·15민족공동행사 추진위원회 발족식과 올해 통일운동의 방향

통일 바라는 모든 국민 참가유도의 장

범대회 성과 계승... 통일세력 단결하는 대중적 행사 될 듯

"잡은 손 굳게 잡고 통일합시다"라는 남쪽이 함께 만든 노래가 울려 퍼지는 행사장에는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다. '8·15민족공동행사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지난 4월 22-23일 이틀간 연세대학교관에서 열렸다. 비가 오는 속에서도 학생·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해 이날 행사는 '자, 우리 손을 잡자'라는 제목의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

는 가수 안지환씨와 뜻지, 전지인 등 노래패의 공연이 있었고 2부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90년대까지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통일운동을 주제로 한 역사극이 노래와 춤을 통해 선보여졌다. 또 3부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주노총 준비위) 소속 노래패들의 공

연이 있었다. 행사 주체인 자주민주통일 민족회의(민족회의)와 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 대표의 출범선언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 후 참가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무대로 달려나가 뜨거운 통일열기를 보여주었다.

민족회의를 중심으로 한 재야 5개 단체(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종교협의회, 민주노동준비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복과 정

민족회의의 관계자는 "5차례 걸쳐 진행된 범민족대회와 남북 해외의 3차연대를 통해 전민족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성과는 계승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중적인 통일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한계를 인정하여 좀 더 발전적인 통일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가 대중성 확보를 위해 제안된 것임을 밝혔다.

한편 범민족대회 등 통일운동에 가장 주체적으로 참여해왔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한 간부는 "그간 범민족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을 알려줬던 것은 분명 성과로 인정돼야 하며 3차 연대에서는 부분도 계승해야 한다. 그러나 시급한 것은 통일운동이 보다 대중적인 차원

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한층더의 입장을 밝히고 "대중성을 위해 통일선언문 등 6·3장년학생대회, 민족화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성과는 계승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중적인 통일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한계를 인정하여 좀 더 발전적인 통일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가 대중성 확보를 위해 제안된 것임을 밝혔다.

이번 범민족대회 등 통일운동에 가장 주체적으로 참여해왔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한 간부는 "그간 범민족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을 알려줬던 것은 분명 성과로 인정돼야 하며 3차 연대에서는 부분도 계승해야 한다. 그러나 시급한 것은 통일운동이 보다 대중적인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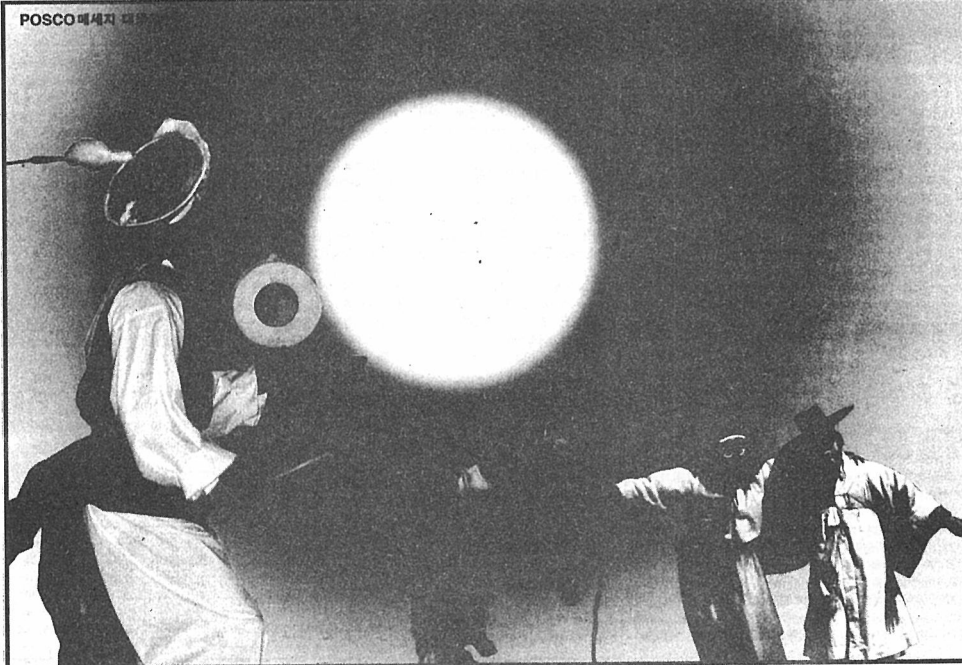
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한층더의 입장을 밝히고 "대중성을 위해 통일선언문 등 6·3장년학생대회, 민족화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성과는 계승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중적인 통일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한계를 인정하여 좀 더 발전적인 통일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가 대중성 확보를 위해 제안된 것임을 밝혔다.

이번 범민족대회 등 통일운동에 가장 주체적으로 참여해왔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한 간부는 "그간 범민족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을 알려줬던 것은 분명 성과로 인정돼야 하며 3차 연대에서는 부분도 계승해야 한다. 그러나 시급한 것은 통일운동이 보다 대중적인 차원



무법천지 지난 17일(월) 전국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복귀투쟁위원회 소속의 노동자 40명이 노동부 형의방문을 가진 도중 경찰에게 집단폭행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시선은 지난 20일(목) 경찰에 의한 시위진압으로 부상당한 노동자가 치료 중인데 시위의원에 참가, 실신한 해고 노동자를 강제로 연행하고 있다. 전행투 지도부는 지난 24일(월)부터 노동부주관 공식식과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태이며, 소속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시민 서명운동과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단:내일신문)

(박내선 기자)



가슴 가득, 달덩이처럼 벽찬 환희를 안고

씻은듯 맑은 봄, 서늘러 축제
뜨락으로 나서자.
분수처럼 치오르는 가슴.
봄의 대지엔 열매는 아직없어.
이성도, 회의도, 사랑도 ... 가슴에
묻어 두었던 모든 것을 쏟아 외치면,
우리의 함성은 천리를 간다.
정열은 하늘 끝까지 치솟는다.
저 달에 약보를 그려 부르는 축제의 서곡,
일흔한 막걸리 한주발에도
오색깃발을 휘둘러 거든다.
오늘은 젊음의 해방기 -
눈부서 일어나 맞이할 수 없는,
가슴에 벽차오르는 기쁨을 참을 수 없는
아 - 젊음의 축제여!

포항제철

□ 세계를 진단한다 (지구촌 곳곳의 민족분쟁에 대하여) ①-르완다 종족분쟁

계급관계로 인해 악순환되는 대량학살 종족전쟁 재발 위험... 적극적 안전장치 마련시급

지난 4월 22(토) 일 르완다 남부 키베호 난민촌에서 투치족 르완다 정부군의 박격포까지 동원된 무차별 총격으로 8천명 이상의 난민들이 살해됨으로써 또 다시 피바람의 칼날 필드가 세계의 맥스럼에 오르내리고 있다. 구덩이를 파고 매달리는 사인은 나체의 아우슈비치 수용소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향후 또 다시 후부족과 투치족간의 대량학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종족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르완다 자체의 역사적 억압구조

현재 르완다의 인구분포는 약 8백만으로서 후부족이 85%, 투치족이 14%, 그리고 트와족이 약 1%이다. 이중 피그미계의 트와족은 선(先)주민으로서 현재까지 수렵과 채집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A.D 1천여 년경부터 반투족의 농경민인 후부족이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15세기 투치족이 북쪽에서 소를 몰고 침입해 왔다.

장신의 투치족은 수는 적으나 다수민인 후부족을 봉건적인 주종관계로 종속시켜놓고 "르와미(Mwami)"라고 하는 왕을 섬기는 중앙집권적 왕국을 형성하였다. 즉 서구세력이 도래하기 이전부터 투치족과 후부족 두 종족 간에는 계급과 지위가 분담되어 있었던 것이다.

19C 말부터 독일이전까지 독일과 벨기에의 기존 정치구조를 식민지 통치에 이용함으로써 투치족들의 우



르완다의 계급구조적 역사에서 종족분쟁은 끊임없이 악순환 되고 있다.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무차별한 대량학살이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르완다의 난민촌에 있는 한 소년(좌)과 키베호 난민촌에 정부군의 사격으로 인한 시체다(우)이다.

위를 확대 재생산시켰다. 벨기에의 통치기간 동안 후부족보다는 투치족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가 제공되었고 따라서 투치족의 우월적 지위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와 후부족에게 개방되기 시작한 교육기회는 후부족 지식인들을 양성시켰고 이들은 과거 식민시대에 그들에게 자행되었던 불평등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UN의 개입과 계속 성장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은 벨기에의 소수 투치족을 내세운

간접통치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즉, 선거에 의한 정권창출이 그것이다. 르완다는 1962년 7월 독립했고 후부족정당인 파르메 후투(PARME-HUTU)당 지도자 카이반다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 후 1973년 7월 5일 무혈혁명으로 북부지역 출신의 하비리리마나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제 2공화국 설립과 함께 1991년 6월 민주화 과정에 따른 대담자가 실시되기 전까지 국민혁명운동당(MRND)은 유일한 합법정치정당으로 출현했다.



나 대통령이 탐욕한 비행기는 아루사로부터 키갈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격추당했는데, 이 공격은 투치족과의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던 후부족 과격파 특히 대통령 경호대가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다. 4월 8일 임시정부가 형성되었지만 후부 과격주의자들이 주축이었고 이들은 새 정부의 비호 아래 시민군을 무장시켜 투치족에 대한 대규모의 살육을 주도하였다.

이에 RPF반군은 르완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재개하였다. 반군의 빠른 진격은 후부족들의 또 다른 국외탈출을 야기시켰다. 적어도 25만 명이 이웃나라인 탄자니아의 국경을 넘어 탈출했고, 적어도 1백만에서 2백만의 후부족들이 패배한 정부에 의해서 방호되는 무수한 캠프에 자국방위 망명민으로 몰렸다. 대부분이 이 캠프의 고도로 피난한 이 행렬은 엄청난 숫자로, 국제원조기관은 그들을 원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기아와 콜레라, 이질 등 전염병이 창궐하였고 수많은 인명이 사망하였다.

1994년 7월 9일 RPF는 르완다 전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 이후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대통령은 은곤과 후부족 정치인인 비지몽구가 임명되었고 부와가타몽구는 수상으로, 전부를 승리로 이끌었던 RPF의 군사령관 카가메는 부통령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17명의 관료중 8명이 RPF사람이고 나머지 지리도 온전 후부족정치인 중에서 임명되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르완다 국민들의 거의 절반이 남의 인구가 국외로 탈출함으로써 피폐된 국가 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후부족 정부군의 장성인 비지몽구의 주도하에 1만5천에서 2만명의 르완다 군인들이 고아 외곽에 주둔하면서 정부군을 규합하여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난민수용소는 그들의 좋은 피난처가 되고 있다.

르완다의 '인종 청소'내전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세계사의 일면이었다. 지금까지 사망한 숫자는 어림잡아 50만명에서 1백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유엔이나 아프리카 단일기구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르완다의 비극은 연속선상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현 정부는 난민 수용소에 있는 후부 과격분자들이 세력을 규합, 현 정부의 전복을 위해 무기구입 및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때문에 후환을 없애려는 현 투치족 정부의 위험재가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종족전쟁의 재발을 가져올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이번 키베호의 난민 학살 사건은 이러한 견해에서 명확한 규명과 처리가 있어야 한다. 또 앞으로 일어날 대량학살을 방지하려면 인도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안전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 광 수
(아프리카 연구소 간사)



□ 대통령의 예고된 문제제기

지자체 죽이기

요즘 정계와 학계의 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이 지자체와 지방자치선거에 대해 '잘못된 상식'으로 무장해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몇 달전 정치권의 정점으로 떠올랐던 내부부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신고제' 역시 잘못된 상식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김대통령의 지자체 인식이 대체 어떻게 잘못 됐을까 이런 비판문이 제기되는가를 그의 발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부에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부라는 것은 미국의 주와 같이 헌법과 검찰, 경찰이 별도로 있을때 적용되는 개념이다'(1월 27일 광주·전남 초도 순시)

그는 이 발언과 함께 '치안관도 없는 정부가 무슨 정부냐'라고 덧붙였다. 학계는 물론 공무원 사회조차 김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조현현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지방정부가 치안관과 재판관을 갖느냐 여부는 각 나라 현실마다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정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심지어 '정부'란 개념이 성립하느냐 여부는 민주주의인간에 의해 정한 사람이 행정을 맡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또한 "민선 대통령이 중앙정부의 장인 것 처럼 민선 도지사와 시장은 작은 지방정부의 대표인 것이다. 다만 법률적 권한과 통치범위가 다를 뿐이다"라고 조씨는 말한다. 김대통령은 계속해서 독점적 중앙관제를 일방적으로 내려 놓아 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헌정사건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소도적인 갈등과 긴장관계에 빠져들었다는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30%가 안되는 곳이 있는 만큼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3월 21일 조찬 기도회 연설)

아전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한다. 민주정의 한 중진의원원은 "한마디로 중앙정부와 사이가 나쁜 야당출신을 단정적으로 뽑으면, 그지역과 지역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은근한 협박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내무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임명하겠다고 밝힌 '지자체 파산신고제' 역시 지방 정부의 재정문제를 중앙정부가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대통령의 기복인식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부부의 명분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의욕만 앞세우는 바람에 자치단체를 파산 상태로 몰아넣는 민간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이데올로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관제의 통제 정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파산을 미리 방지하는 제도는 활용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파산선고를 내리는 예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임이 밝혀졌다.

'최근 언론은 지방 선거를 마치 정처하는 사람 뽑는 것처럼 떠돌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의 실행실행을 맡을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3월 20일 서울대학교 졸업식)

김대통령이 그동안 지방선에서 패배하고 감조한 대목이다. 이번 4대 선거를 '지방 행정을 담당할 일꾼 뽑기'라는 차원에서 조용하게 처리하라고 역설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김광을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엄연한 지방정부에 행정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지방 자치는 중앙으로부터의 권력 분산이며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측면으로 바라 봐야 한다고 얘기한다.

아전에서는 김대통령이 집권당에 유리하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꾼론' '행정기관'을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대통령이 '행정'을 강조하는 이유에는 불미리한 이번 선거가 지는 중간선거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김대통령의 탈정치화된 지자체 인식은 독점관제의 분산을 꺼리는 통치권리로서의 입장과 선거를 의식한 전략적 고려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마나 기자)

외 대 학 보



르완다 종족분쟁의 경과

한편 후부족의 억압을 피해 주변국으로 탈출한 투치족들은 1979년 '르완다에 독립전선'(RPF)을 결성하였고, 이듬해부터 주도하는 우간다 반군에 참여함으로써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였다. 1990년부터 RPF반군은 탄자니아에서 야루사 회담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3선을 넘게 끝났던 내전 끝에 조인된 '아루사 조약'에서 RPF는 무장 해제 및 군대 해산, 그리고 소규모의 국가 방위군으로 재조직할 것을 합의하였고 우호의 정조로서 RPF군 대대병력이 수도인 키갈리에 주둔하게 되었다. 또한 22개월 안에 선거를 실시하고 하비리리마나를 대통령으로 존속시키는 과도 정부의 구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UNAMIR(UN Assistance Mission to Rwanda)의 설립과 함께 UN에 의해서 감독되어졌다.

1994년 4월 6일 저녁 하비리리마

분 단 기 행 1

“이제는 자유해야 할 상처들...”

1953년 그렇게 한국 전쟁은 끝났다.
37°N의 남북상상의 뒷가늘 원은 것은
150만명의 인명피해, 63만호의 가족(전통)파손
천만 이산가족과 함께

반반년의 한가운데 역사를 멈추게 한
50년 분란이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의
그 현장

통일맞이 6천왕산인 모임과 외대학보가 함께합니다

독도(獨島)

동해(東海)너른 곳 우뚝 솟은 아름다운 섬

통일봉(統一峰)의 아침해 붉게 타오르고

젊음의 열기(熱氣) 그대를 휩싸는데

바닷바람 전하는 굳센이 천고(千古)의 숨결을 담았네.

조상의 염원(念願)서리고 긴긴세월 그림던 섬

쟁이 갈매기 숨새는 바다제비와 노누나

청명하늘에 성인봉(聖人峰)이 뚜렷해

백두산 줄기로 이어내려 서기(曙氣)도 가득차랴.

고고(孤高)한 동(東)녘 자랑차다 풍요한 섬

다랑어 방어 흑돔 여기가 선민의 터전

역사(歷史)와 더불어 굳건한 만석되도

5천만 민족(民族)기슴 깊숙히 내사랑 독도(獨島)여

박정희 (시인과 교수)



'한총련의 미래 주인공'

지난 4일(목)부터 6일(토)까지 대구 경북에서 열린 제3기 한총련 출범식 이후 5만여명의 학생들이 가스폭발로 분노한 전 대구 시민들과 '시민학생 한마당'을 진행했고 있다.

한총련을 하는 등 대구 시민과 민족의 아픔을 함께 한 학생들은 아직 애환은 웃음을 건직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방송평론- '사랑의 스튜디오'

조건과 화살표가 맺어준 사랑빠진 짝짓기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텔레비전 화면에 4쌍의 선남선녀(?)가 나온다.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이 프로그램(Program)은 청춘 남녀의 신기한 연애를 전한다. 1, 2차 판문은 남녀가 서로의 성격과 기질, 취미 - 과연 30여분 동안 상대방을 알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 등을 교환한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확인한다. 처음의 선택이 달라진다. 남녀가 짝을 짓는 과정은 인류의 보편적 관심사에 내용도 상관없이 시청자들의 입가에 미소를 자아낸다.

그러나 상품화가 최고의 가치로 자리잡은 이 시대에 일관한 순수(?)로 가장한 대표적 전유물이다. 특히 '저는 고개를 돌렸고' 현대에 일사불란하다라는 신본성을 자극하는 정력소개 - 물론 그들의 입사를 위한 빠른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 와 여자들의 집은 화장으로 꾸민 가식적인 미(?)에, 그 '미'에 자신의 선택을 바꾸는 젊은 남녀의 모습은 팔방미인에게 가까워 보인다. 디디어 몸값을 치른 후 한평 정도가 탄생한다. 시시공공의 신

화는 들어 붙은 한쌍이 들어 갈만 이후 짝을 찾은 후에도 표현했다.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은 어느새 타락하고 순간적 쾌락만이 남무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순수한 감성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는 것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하라시킬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하다.

현대판 신본성 '돈 가진 액수'를 재성신하는 사회적 구조는 이렇게 유지되나 보다. 고기 덩어리처럼 팔려가는 청년층의 여자가 어두운 곳에서 장사를 한다. 무엇이 다른가. 공익(公益)을 대표한다는 방송은 어느새 사회적 문제를 확산시킨다.

모 방송사의 주말 프로그램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Program)이 있다. 대학생 여자들의 출연 모습은 이 시대 대학원의 화려한 시각을 유포하는 것이다. 백주대낮에 가스폭발로 1백 여명이 사망하는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예비 사회인 대학생, 가슴앓이 하며 현열을 하는 대학생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다. 팔팔을 걷고 기지춘의 여성을 도우는 애정, 여성 농민의 한에 눈물 흘리는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빈 거대한 사랑의 방송을 통해 전

국에 비추진다. 부모님들은 '대학 보내면 다니 뜻...' 하며 한숨을 쉬는.

김남중 (성경·경제4)

영화이기가 - 한국학생운동사1- '저들이 가는 1989년'

현실과 역사성 담은 한국적 소재 학생운동사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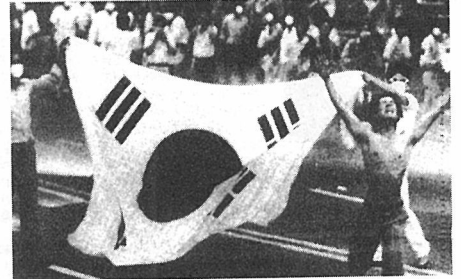
"우리 영화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출발은 미미한 지 모르지만 우연히 올버브로 정의로움 영화작업, 장과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작과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4월 19일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 학생 운동사 영상화 한 '저들이 가는 1989년' (연출 김덕영, 신원문화제작소) 시사회에 서 만난 제작진들의 목소리이다. 이들은 우리의 현실과 역사에 기반한 한국적 특성을 영화의 공간속에 투영시키고 싶었다고 전한다. 또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우리 영화의 정체성은 전통의 고수와 답습속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지향점 없는 코미, 애정물 속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잊었다는 것이다. 주권주의와 개인적 유대관에 치중한 나머지 역사의 진실성에 대한 실증과 현실의 역사성에 대한 인양함에 도전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과 진지함이 돋보인 작품이다.

이 영화는 학생 운동사를 영화로 재현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하고 있다. 80년대 고교생들은 젊은 연애했다. 박정우와 80년대 고교생들은 젊은 연애했다. 오빠를 가진 여중생과 선생은 영화화할 때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한다. 이 둘은 80년대 학생운동이 벌어졌던 격동의 현장들을 하나 둘씩 찾아 나섰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 보고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박정우는 80년대적 정서와 감정을 잊지 못하는 원죄주의와 과거 지향적 인물이다. 그는 90년대인 신세대적

사고를 지닌 신세대와 만난다는 충돌을 겪는다. 전유는 일상의 외로움과 관습화 된 자기의 굴레를 벗고 선열 역시 죽은 오빠에 대한 집착과 미련에서 도망쳐 나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남은 틀을 깨고 전유와 함께 내일의 주역으로 살아가길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결국 그들은 80년대 학생 운동의 현장 현장에서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불안함과 나태함을 버려치며 투쟁하고 중앙집권과 감시에서 해방을 맞는다.

극적 내러티브 구조 안의 80년대 자료와 면은 더욱 풍부하고 구체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역사에 대한 다층적인 인식의 다양성을 감안하고 역사의 진실성을 소중하게 고려한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80년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80년대 상황에서 80년대 상황에 대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카메라를 들어대기 보다는 정서적 접근을 시도한 듯 싶다.

그와 더불어 우리만이 간직하고 있는 '영화의 소재'를 발굴했다는 말도 더하고 싶다. 이념과 사상이 퇴색되어버린 시대적 조류 속에서 이 영화가 형상화 한 한국의 학생 운동사는 시대적 패러디는 젊은이들의 이상과 사랑, 우정을 간직한 우리만의 소중한 자식이자 역사 그 자체인 것이다. '백범명'이라는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같은 꿈과 사랑을 가슴에 담고 민주주의의 제언에 몸을 바쳤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건전한 품격을 지니고 개성을 보였고 이 영화가 통해 영화나 문화의 '진실성 찾기'를 발견할 수 있다.



나중에 접한 사실이지만 영상에서 만나게 되는 주연 배우에서 조연, 일반 출연자들까지 모두가 영화 애호인들로 구성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모습의 구조가 영화화 재현하는 스타일의 모습 그대로를 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연기는 아니었지만 아스팔트, 학교 교정 곳곳에 붙어 있는 우리 운동의 열기와 뜨거운 열기가 살아있는 듯 했다. 그대의 그 열정을 내 가슴속에 아직 간직하고 있을거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나의 신념과 머리는 혹시 내 한가운데서 위태로워진 것 같았다. 이는 살해당하고 당시의 작본과 현실이 품을 거리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곤 했다. 이 작품을 연출한 김덕영씨는 작전 연출 서강대 총장 박흥의 주사와 발인 파동과 관련

해 다룬데 '순종하는 진리'와 드라마 '내일의 내일의 태양'을 제작한 박진석 감독을 지닌 영화인이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영화속에 담아내는 영상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80년대 학번인 나 는 우배들의 삶과 모습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지난 80년대 말에 내가 가진 경험과 생활, 지금의 변화와 우배들의 정서를 담아내려 하며 흔쾌히 응했다. 나는 나와 우리 우배들을 맺어주는 길인 끈을 이번에도 거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80년대의 연속선 상에 살고 있는 '학번'이라는 것을.

김성필 (법·법학4)

학내 일정

8(월)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 학내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 학술강연 "지역학이란 무엇인가" (도시전4층 세미나실 5시30분)	· 총학생회 "지역학이란 무엇인가" 강사:이인영 (소강당 5시)	· 이문동·최대호 (대학원 6104 5시)	· 박정희·최수남 구명회 국가보안법 제정 10주년 기념식 (이문동·최대호) (이문·왕산)	· 동서대방 5시 18관원 기조식 구명회	· 동서대방 5시 18관원 기조식 구명회

동대제전(왕산)

일주일 식판

(이 문)				(왕 산)				
구분	요일	월(8)	화(9)	수(10)	목(11)	금(12)	토(13)	
제1차식판	전 신 1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2차식판	전 신 2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3차식판	제 1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4차식판	제 2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5차식판	제 3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6차식판	제 4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7차식판	제 5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8차식판	제 6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9차식판	제 7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10차식판	제 8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11차식판	제 9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12차식판	제 10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13차식판	제 11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14차식판	제 12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15차식판	제 13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16차식판	제 14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17차식판	제 15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18차식판	제 16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19차식판	제 17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20차식판	제 18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21차식판	제 19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22차식판	제 20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23차식판	제 21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24차식판	제 22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25차식판	제 23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26차식판	제 24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27차식판	제 25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제28차식판	제 26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왕산) (도시전3층 6시)	왕산대외(		